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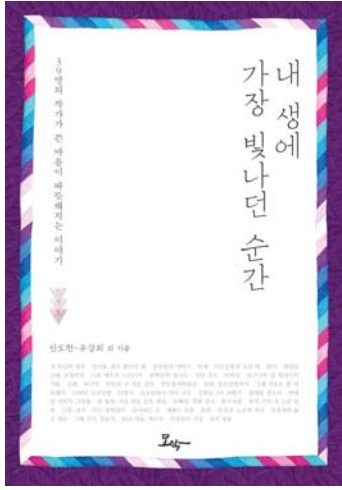
▶ 전북작가회의, 산문집 '내 생애 가장 빛나던 순간' 출간

내가 기억하는 것들은 바로 '나의 실체'

전북작가회의(회장 김병용)가 산문집 '내 생애 가장 빛나던 순간' (모악)을 펴냈다.

책은 작가회의 소속 시인·소설가·아동문학가 등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과 장소와 인물에 대한 추억담을 엮었다.

39명의 작가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처럼, 평소와는 다른 호흡과 언어로 그 여행을 기록했다. 이들이 풀어낸 소중한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보물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만날 수도 있다. 절망의 순간에 깨달음을 준 스승과, 추운 시절을 함께 견뎠던 친구도 떠오른다. 그런가 하면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했던 유년의 날들과, 좌절과 절망으로 늘 고개를 숙이고 지냈던 청춘의 시절도 다시 살아난다.



지난날의 모습
빛나는 추억으로 바뀌

“삶이 함부로 잊혀서는
안될만큼 소중한”

너무 조그맣고 너무 까맣다. 그래서 화가 난 봄 햇살이었다.

-유강희 (덕진공원과 오리 배)중에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늘 뭔가 부족했다.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날의 모습은 어딘가 모자라고 조금은 안쓰러웠다. 그 신선했던 지난날을 39명의 연금술사가 빛나는 추억으로 바꾸어놓았다. 지금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지난 시절도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이 책과 함께 작가들의 기억 여행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내가 기억하는 것들이 바로 나의 실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병용 회장은 “우리의 기억을 문장 안에 새겨 넣는 이유는 우리 삶이 함부로 잊혀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기 때문”이라며 “작가들이 추억의 언어로 회상하는 장면들은 빛바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어머니는 오리 배를 타는 동안 서울에서 걸려온 동생과 형의 전화를 받고 자랑하기 바빴다. 지금 우리 배를 타고 있다

고 그곳 오리 배 좀 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어머니는 자랑하고 또 자랑하셨다. 우리는 오십 분쯤 오리 배를 타다 내렸다.

구멍조끼를 입은 채 기념사진도 찍었다.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봄날에 어머니가 너무 늙어 보였다. 팔순의 어머니 얼굴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조성 21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조성사업 접수를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재단과 전북도가 함께 하는 '2017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조성사업'은 낙후된 버스터미널의 환경을 개선하여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재단은 전북의 관문인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예술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문화터미널'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 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도민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가 '2017 전북방문의 해' 지정과 관련하여 전북 관광객 3,500만명 유치 목표에 다양한 문화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유입과 이동 많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환경 개선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공간 마련에 큰 의미가 있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문화 사각지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잖은 기대가 예상된다.

접수는 이메일(jbct-edu@hanmail.net)을 통해 진행되며, 4월 말 심사를 통해 2개소 터미널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누리집(www.jbct.or.kr)을 통해 알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 완주서 국립발레단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공연
화려한 '명작' 하이라이트

완주군에서 국립발레단의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 공연이 열린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후원으로 오는 19일 완주문예회관에서 완주군민들에게 선보인다.

공연은 국립발레단의 찾아가는 발레이야기란 타이틀로,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공연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그동안 공연된 국립발레단의 우수작품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갈라쇼로 진행된다.

특히 공연에서는 드림스타트

어린이들과 이산모자원, 국제재활원, 장애인협회 등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이날 26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윤형주와 김세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공연에 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다.

한편 발레공연과 기타 공연에 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문의는 완주문예회관(063-290-2597)으로 하면 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중국 '선면화' 작품전, 군산예술의전당서

부채 위에 담겨진 중국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군산을 찾는다.

군산시, 주한중국문화원, 중국국가화원이 주최하는 '중국국가화원 중국화 선면화(부채에 그린 그림) 작품전'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군산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10월 주한중국문화원과 군산시가 맺은 '문화예술 공연·전시'에 대한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들은 중국국가화원에 소속된 우수한 예술가 39명의 중국 선면화 78점의 작품을 군산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옛 선비들이 자주 즐겼던 예술품인 선면화는 천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지금까지도 중국의 예술가들이 즐기는 예술의 한 형식으로 부채라는 특정한 공간에 중국의 풍경과 화초 등을 중국의 풍격으로 멋스럽게 담아냈다.

예부터 부채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중국 문화 예술 선면화 작품전을 통해 중국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고 나아가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봐도 좋을 듯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중국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을 이해하고 문화 예술의 민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와 주한중국문화원은 내달 13일 후남성 기예단의 중국서커스 종합공연을 준비해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의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군산=정형 기자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표현능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놀이'를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이야기 놀이는 6~8세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8개 주제, 가족·환경·세계문화·여러 감정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작가의 그림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눠보고, 작가 고

'아동작가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놀이'

국립전주박물관, 6~8세 아동 대상 이달부터 11월까지

유의 창작과정을 경험하며 표현해 볼 수 있다. 참여 아동작가는 2015년 불로냐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언제나 널 사랑한다> 이운우 작가, <마음아, 작아지 마> 신혜은 작가, 제10회 황금도깨비상 그림책 부문 수상 <엄마의 여행기방>의 신현경 등 8명이 함께 한다.

새하기를 맞아 새로운 친구들과 낯선 환경 사이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4월은 아동심리학자 겸 작가로 활동 중인 신혜은 작가와 '여러 감정들'이란 주제로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5월에는 <나와 가족들>, 6월 <지구야 아프지 마>, 7월 <지구 한 바퀴>, 8

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월 <생활속 지혜>, 10월 <엄중한 상상>, 11월 <맛있게 낚시> 등 다양한 주제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6~8세 아동 동반 가족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교육일 10일 전부터 박물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扶來 부안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제5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대상 대회 >

일시 : 2017. 5. 5(금) 09:00 ~ 15:00

장소 :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주관 : 부안농악보존회,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 대한민국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